

#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기로 결단하게 한다.



##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디모데전서 1 : 1~8, 12~20

찬송 : 358장(통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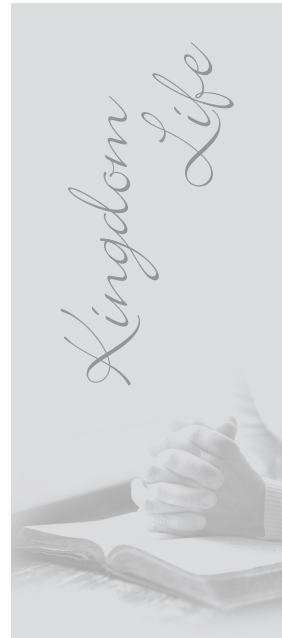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삶이 전쟁터라고 생각되었던 때가 있다면 언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배경설명 :**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권면할 때에 장차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출현하여 어그러진 말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행 20 : 17, 29-30). 그 후 어느 시점에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초대교회 시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및 유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쳐 논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후서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니, 디모데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도움말 :**

- 어떤 사람들(3절) : 거짓 교사들을 의미함.
-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3-4절) :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상치되고 인간들이 꾸며낸 허구들로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및 유대주의 이단과 관련된 것들임.
- 하나님의 경륜(4절) :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공동번역).
- 예언(18절, 헬 : 프로페테이아스) :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의미함.
- 싸움(18절, 헬 : 스트라테이아) : 영적 전투를 의미함.
- 사탄에게 내준 것(20절) : 출교를 의미함.
- 훈계를 받아(20절, 헬 : 파이듀오) : ‘파이듀오’는 어린이가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30분)**

1. 사도 바울이 마케도나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4절)  
어떤 사람들, 즉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에베소 교회를 거짓 교사들로 부터 보호하고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바울이 언급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무엇입니까?(도움말 참조)**

다른 교훈은 초대교회에 유행했고 신화에 의존하던 영지주의 및 유대주의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의미한다.

참고 : 영지란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특별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영적인 지식이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에 기초하여 그들은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 쾌락주의를 표방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사건에 종종 ‘신화’라는 말을 붙여 사용했다고 한다. 에베소에는 어떤 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어떤 성을 세웠다거나, 혹은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문을 이루었다는 등의 신화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 ‘우리 가문은 특별한 가문이며 우리 조상은 본래 신이었지만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이루었다’는 식으로 자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는 한 집안의 가문이나 계통을 의미하는 족보로 이어졌다.

###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 **에베소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4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켰다.

####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 **진리처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목회자에게 알려져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사랑과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이 진리처럼 통용되는 것을 내버려두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야 할 것이다.

## **2. 바울은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5-7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 **이러한 사랑에서 벗어난 거짓 교사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6-7절)**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했으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쳐 교회 안에 논쟁만 일으켰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첫째,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

둘째,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가르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가르치는 것을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섯째,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약 3 : 1).

이 외에도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도록 하자.

### **3. 바울은 율법과 관련된 거짓 교사들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12-17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르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며(13절), 또한 하나님께서 후에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게 하시려 하셨기 때문이다(16절).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 교사들과 같이 무엇을 말하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율법 교사처럼 행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시고, 나아가 직분까지 맡기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테가 거짓 교사들을 치리할 때에 거짓 교사들도 바울 자신과 같이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16, 20절, 딤후 2 : 25-26 참조).

**바울의 이러한 간증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믿기 전의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났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착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주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입어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이, 현재 믿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도 주의 긍휼을 입어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18-19절)

바울은 그가 전에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한다.

칼빈은 디모데전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이 디모데가 직무를 수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계시의 말씀들(4 : 14 참조)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했을까요?(4 : 12, 딤후 1 : 7 참조)

젊고 두려움이 많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거짓 교사들로 인해 여러 고난과 낙심된 상황에 부딪힐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를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신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예언,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확증하며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명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예언,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를 붙들어 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 것이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 주거나,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따라 살기(15분)

인도자는 참가자 교재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이 질문에 답한 자들에게는 1번(개인 적용)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 나누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오늘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신다.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자. 참가자들 중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학교의 교사로서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것을, 직장인으로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저항 혹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삶의 현상이 거짓과 유혹으로 가득찬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써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서적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자녀 양육에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2.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소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인도자는 미리 주변의 이단들에 대해 연구하여 간단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이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거나 자신이 정리한 것을 목회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와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주요 교리들과 그 교리들의 그릇됨을 밝히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을 옆에 적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리한 것을 온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교회 게시판에 게시해 보자.